

社說

한심한 행정사무감사

포천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포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가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것은 79건이다. 지난 1년 동안 포천시가 추진한 대부분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원들은 현장조사와 민간의 준비를 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는 시의원들이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비가 부족한 것인지 과거 행태와 큰 변화가 없었다.

시의회가 권한 중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은 행정사무감사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업무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인허가와 관련해 비리가 없는지의 확인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오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고 만약 부정이 숨겨져 있으면 과감히 밝혀 투명하고 공직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같이 업무의 과오 혹은 부정부패를 밝히려면 시의원 스스로 지방행정에 관한 사항들을 많이 알아야 가능하다. 그리고 행정이 집행되는 과정 또한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원현장에서 조사 활동과 전문가들의 조언 등이 있어야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 중에서 포천시의원들은 과연 몇 가지를 견뎠는지 묻고싶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지켜본

사항이나 피감기관인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별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피감 공무원들까지 별것 아니라는 말은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선거후 취입한 3개월여 밖에 되지 않아 행정업무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조사를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급제 시행 이후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시민들은 실망스러워 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의원들과 관련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은 전문성과 참신성 부족이다. 시의원들을 선출해 준 시민들은 포천시를 위해, 시민들을 위해 뭔가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 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집행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자 권한이다. 이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민들과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시의원들은 지방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하고 행정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학술용역 부실운영 지적 조례개정 요구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욱)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포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18일 정중근의원은 종전 공장설립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신청자가 법정도면에 접하지 않은 경우 진입도로를 사업부지와 함께 일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 5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이면 경우 인정치 않는 원인이 뭐냐고 질문했다.

또 국토법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권 자이며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이 판단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강대선 의원은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묘지와 공설묘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허가 대책을 수립한 후 일제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면밀히 검토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한 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중천의원은 양문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여과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중에 양문지방산업단지 여과 시설을 시공한 경인건설 담당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청하고 20일에 증인을 청취하고 현장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이중효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감사에서 폐쇄성을 이용한 축산산내 풍평화장 건립용역비 1천500만원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며 조례심의 대상이 2천만원 이상 되어 있는 사업이 검증이 되지 않고 부실하게 용역이 발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학술용역비 하한선인 2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을 검토한 후 의회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19일 4일자 감사부서는 읍·면·동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감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서면감사를 마지막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포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추석 앞두고 '공항 고속버스노선' 개통

포천-김포공항 7천400원, 포천-인천공항 1만400원

포천시가 민중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공항 고속버스노선을 개통한다.

개통일은 9월26일이며, 포천터미널~내촌~외곽순환고속도로~김포공항~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구간을 28인승 리무진 버스가 하루 2차례씩 왕복 운행한다.

신승동에 위치한 포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전 5시30분과 오후2시, 그리고 인천공항(1층 8-B 탑승구)에서는 오전 10시와 오후 8시 30분에 각각 출발하게 된다.

소요시간은 포천터미널에서 인천공항까지 120분이며 운행요금은 포천에서 김포공항까지 7,400원, 인천공항까지는 10,400원이다.

이번 공항버스 개통으로 포천 시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 군장병들의 공항이용은 물론, 국내외에서 공항을 거쳐 포천시를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포천시에는 인천, 안산, 수원, 안양, 동서릉 등의 수도권과 춘천, 속초, 강릉, 동해 등의 강원권은 물론, 청주, 대전, 광주 등을 오가는 고속버스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대구노선 개설도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기존 광역교통노선에 더해 이번엔 공항 노선이 개통됨으로써 전국 1일 교통생활권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언론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해야”

본지 조사위원회 제16차 정기회의



본지 최효열 발행인은 제16차 조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각종 기사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본지 조사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조사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전임 김종현 위원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을 비롯한 기사제보 및 기사작성 협조의 건, 불우이웃돕기 창구 참여의 건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전임 김종현 위원장은 “송우리 대방노블랜드 아파트앞 주차장은 본래 체육시설 부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둔갑했다”면서 “포천신문에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가산삼거리 부근 교량건설공사 중단되어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포천신문에서 교량건설공사가 중단된 사유 등을 기사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효열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조사위원회는 기사발굴은 물론 각종 기사를 신문에 제보함으로써 포천신문 기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조사위원회가 측면면 도우주는 것은 신문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조정선 위원장은 “새로 선출된 임원들은 김종현 전임위원장 등이 쌓아놓은 터에 거름을 뿌리고 씨를 뿌려서 황금 밭판의 열매를 같이 조사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위원장은 “언론은 사회 각 요소를 이어주는 이음쇠일 뿐 아니라 사회의 신경계통이며 혈관조직”이라며 “사회환경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관이며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항해사라 같다”고 지적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동전모으기 활성화 논의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제13차 정기회의 개최

지난 14일 본지 주부명예기자단은 제13차 정기회의를 갖고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동전모으기 운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기회의에 앞서 주부명예기자단은 기사작성을 위한 취재기법과 기사작성법 등 기본소양 교육을 받았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기사작성 및 제보의 건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동전모으기 운동 중간 결산의 건 ▶정기독자확보 협조의 건 ▶불우이웃돕기 명단 제출의 건 등이다.

또 불우이웃돕기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동전모으기 중간결산 차원에서 120여개의 돼지저금통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한 각 읍면동 지부는 추석 이전에 어려운 이웃을 파악해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임정순 단장은 “주부명예 기자들이 올해 크고 작은 많은

활동에 감사 드린다”면서 “주부명예기자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원배가운동과 기사작성이 필요한 만큼 많은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지난 14일 본지 주부명예기자단은 제13차 정기회의를 갖고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동전모으기 운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contact details, address, and pricing.

Large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 featuring the slogan 'Pocheon News is the highest regional newspaper in the country' and a list of subscription rates.